

논문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 목 차 -

- I. 서론
- II. 도서관서비스 현황
- III.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과 역할에 관한 제언
- IV. 결론



글·육근해*

I. 서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과 장애인인권선언,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체적, 물리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통상의 인쇄물을 읽는 데 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촉각이나 청각을 통해서만이 독서를 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들에게 공공도서관 등의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출간된 자료와 정보를 시각장애인용 포맷으로 재제작하여 제공해야만 정보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중요성은 비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민간이 그 명맥만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점자도서관장, 우리협회 특수도서관위원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youk@kbl.or.kr

최근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다.¹⁾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학계,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등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조건 “복지서비스”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과 장애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해 등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이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의 건립이 향후 10년, 20년의 대계를 내다보는 좋은 도서관으로 건설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통찰하고, 외국의 정책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해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의 법제화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발전 방안이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서관서비스 현황

1. 한국

1) 이용자 정의

시각장애인도서관 또는 점자도서관 이용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자(墨字)”, 영어로는 “Ink-print”라 하는 활자화된 인쇄물을 읽는데 장애를 갖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Blind & Visually Impaired people)과 독서장애인(Print-disabled people)을 말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력에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도서관의 이용자로 인식하여 왔으나, 누워만 있거나, 양손이 없는 중증신체장애인, 읽기 쓰기 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장애인 또는 난독증(Dyslexia), 교육 부

1)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2005. 2.24. 국회도서관 대강당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5. 4.15. 국회도서관 대강당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5. 9.1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실

재에서 오는 문맹인, 노안으로 인하여 독서가 불가능한 노인 등은 독서장애인으로서는 점자도서관의 이용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 독서장애인이 점자도서관의 이용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²⁾란 학술논문이 도서관지에 실리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충 방안”³⁾이란 발표가 있는 이후 본격적으로 독서장애인을 점자도서관의 이용자, 특수자료의 이용자로 인식하고 시각장애인과 같이 지식 정보소외계층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각장애인과 노인 외의 독서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고, 학습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의료적,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시각장애인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육병일이 1969년 12월 10일에 한국점자도서관을 설립하여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제작하고 전국 맹인을 대상으로 대출 봉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점자도서관은 2005년 현재 23개⁴⁾로 36년 사이에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으로 점자도서실을 운영하다가 1997년 이후 문화관광부에 “점자도서관”으로 별도로 등록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평생교육, 문화정보 서비스의 도서관이 아니라 문고를 양성하는 것이다.⁵⁾

이런 문고형 도서관의 증가 요인으로는 점자도서관 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이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1994년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오히려 하향 조정되어 개정된 데 있다.

또 오히려 특수자료의 중복제작만 늘어나고 연간 제작되는 도서의 종수는 줄었으며, 문화관광부의 점자도서관에 대한 전체 예산 증가가 도서관의 증가 수에 비례하지 못해 서비스의 중단 또는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를 낳고 있다.

2) 육근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 도서관 2002, 봄호(2002. 3).

3) 육근해,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세계 책의날 기념 토론회, 2002. 4. 23.

4) 정병국,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 2004.10.

5) 정병국, 전게서.

2. 해외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시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국가도서관 외에 별도의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 설립에 있어서는 민간이 설립한 후 국가로 이관시킨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국가가 설립 운영하기도 하며, 민간기관이지만 국가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여 모든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나라도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같은 범주로 인식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1) 미국 : 국립시각·신체장애인도서관(NLS/BPH)⁶⁾

미국은 1931년 3월, 성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Pratt-smooth Act가 제정됨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 안에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분과로 The Division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를 설치하였다.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의 장애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정과 조건에 적합한 지역적 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분과는 1978년 5월에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NLS/BPH)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현재 NLS/BPH를 통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는 2개소의 중앙관리센터(Multistates Center), 57관의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y), 81관의 부지역도서관(Subregional Library), 기기대출기관(Machine Lending Agency), 부기기대출기관(Machine Sublending 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소의 MC는 북부, 남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 마스터테이프를 보관, 대출용 테이프 복사, 기기의 보관, 대여, NLS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복본 보관 등, 각 네트워크 도서관의 서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LS/BPH는 네트워크 도서관에 자료, 기기, 목록 등을 제공하고, 57개의 지역도서관은 대부분 주립 또는 시립공공도서관이 소속되어 있지만 비영리기관이나 신체장애인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직원과 시설에 관한 경비는 각각의 네트워크 도서관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6) 沈谷順子, “国レベルの視覚障害者サービス:日本・米国・スウェ덴を比較して”, 圖書館情報大學 修士論文, 1999.

- 도서 선택과 제작
- 지역도서관을 통한 자료와 관련 잡지 정보의 유통
- 음성재생기기의 설계, 개발과 약 1,000,000대의 재생기기를 대여
- 제작물과 봉사 기준의 확립
- 자원봉사자의 훈련, 강습, 관리
- 상호대차계획의 관리
- 목록과 출판물의 정비
- 시각장애와 신체장애에 관하여 전국적인 참고 자료 제공
- 음악자료의 개발, 유지, 대출
- 네트워크 도서관의 감독과 지침 제공

2) 덴마크 : Danish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DBB)

덴마크는 1811년 왕립자선재단의 후원으로 맹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바와 같이 일찍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1924년에는 사회보장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 아래 맹인을 위한 시립인쇄소 및 도서관(The State Printshop and Library for the Blind)을 설립하였다. 1985년에는 문화부로 부처를 이관하고 장애인서비스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되며 명칭도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으로 바꾸었다.

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문화부 도서관법 15조에 1항에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맹인이나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로 인해 활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자료를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공공도서관이 그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앞에 언급된 이용자들에게 공공서비스로서 덴마크와 외국으로부터 자료 대출봉사를 한다’ 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덴마크국립맹인도서관은 1항에서 언급했던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므로 국립맹인도서관을 주축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게 모든 시민과 동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도서관, 국립의학과 학도서관, 왕립학술도서관, 왕립도서관 등과 같이 국가 도서관의 격상을 가지고 있다.⁷⁾ 국립맹인

7) www.dbb.dk/english/facts.asp

도서관은 전체 운영비의 99%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직원은 정규직원이 82명이고 비정규직원이 35명이다. 도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를 제작
- 점자 및 녹음도서 잡지 제작
- 점자음악악보 서비스
- 전문직업인에게 개인 참고봉사
- 맹농장애인에게 개별적 봉사
- 인터넷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법,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 국가적인 자원 센터

3) 스웨덴 : Swedish Library of Talking Books and Braille(TPB)

1892년 점자협회가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11년에 맹인협회가 운영을 맡게 되었다. 1960년 후반부터 정부는 점자도서관 경비의 75%와 학생 지원업무에 관한 예산의 100%를 맹인협회에 지원하였다. 그 이후 1980년에는 이 도서관을 교육연구문화 부처 산하로 이관하여 스웨덴점자녹음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립도서관으로 승격,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도서를 구입할 경우 일반도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서점에서 점자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도서관은 교육연구문화부 산하에 있는 정부 운영 주체 도서관으로서 모든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직원은 80명이고 그 중 주제사서만 20여명이다. 도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점자 및 녹음도서 제작 및 판매
- 공공도서관에의 협력 대출
- 모든 특수 자료 수집 및 소장
- 맹농자에의 점역서비스
- 시각장애아를 위한 촉각도서 제작

- 독서장애 대학생용의 교재 제작 및 제공
- 점자도서·녹음도서에 관한 조언, 정보 제공
- 스웨덴 국내의 녹음도서의 확충을 위한 노력
- 시각장애자와 독서장애자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4)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문화부가 시각장애인도서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해 놓고 있다. 이 법 3조 3항에 도서관 목적은 국립도서관과, 자국 내의 맹인과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규정했고, 11조에는 문화부가 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에 속한 부동산을 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양도하여 시각장애인도서관이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또 13조에 1항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5) 기타 :

체코는 도서관 법 3조에 문화부 산하 국립도서관과 별개로 K.E.Macan 시각장애인도서관과 인쇄소(The K.E.Macan Library and Printing Press for the Blind)라는 도서관의 설립 운영을 명시하고, 15조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장서를 만드는 예산의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1910년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도서관법에 시각장애인과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독서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이 모든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에 따른 교과서 등의 모든 책을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도 1931년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National Council for the Blind of Ireland)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캐나다는 1918년에 설립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Library, CNIB Library)이 있다. 이 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시력을 잃은 장애인에게 국가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상담, 직업개발, 고용, 특히 시각장애아동

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특별히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문화교육부 산하에 7개의 지역도서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중 북독일점자녹음도서관(North German Library of Talking Books and Braille)은 정부로부터 예산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국가대표도서관에 장애인담당 사서를 두고 소장도서에 대한 서비스를 하며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 대하여, 영국은 국립점자도서관과 일본은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점자도서관과 연계하여 전문 학술문헌 서비스를 하고 있다.

III.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과 역할에 관한 제언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앞 장에서 국내외 점자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정책을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이용자 대상과 명칭 정의

이상에서 소개한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국립형태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은 통상의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것임을 보았다. 공공도서관이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도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하는 특수 자료가 일반 자료 같이 출판되어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도서관이 서비스하기 위하여서는 특수 자료의 제작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명칭도 대부분의 국가가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또는 점자녹음도서관으로 칭하고 있다. 명칭을 통해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따라서 명칭은 우리나라도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역할과 기능

설립 목적이 통상의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이므로 기능과 역할은 특수 자료 및 장비의 연구, 제작, 보존, 배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세 법안 가운데 정병국의원과 박형준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독립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동일한 의견이고, 이미경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센터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⁸⁾ 이 서비스센터의 설립문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자료에 대한 전문성이 소홀해질 수 있고 자료가 없는 센터가 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및 총괄
 -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에 따른 국가 정책 수립 및 총괄
 - 예산 대비 효율성과 최대 효과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총괄
- ②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공
 -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 규정
 -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규정
 - 국내 자료 형식 및 서지 사항의 표준화
- ③ 시각장애인용 정보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형태로 제작·수집·보존·축적 및 배포
 - 다양한 양서를 다양한 특수 매체의 유형으로 제작
 - 시각장애 대학생 교재 및 중고생 참고서 제작
 - 학습 및 지식 향상을 위한 학술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점역 또는 음역으로 적합성, 적시성, 신속성, 무비용으로 제공
 -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촉각교재 및 통합교재 제작

8) 정병국 의원 : 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 개정안
 이미경 의원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 개정안
 박형준 의원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면 개정안

- 국내외에서 제작되는 특수 자료의 수집, 보존, 축적
 - 국내외 도서관의 상호대차를 통한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최대화
 - 모든 특수 자료를 일반도서와 같은 가격으로 보급
 - 평생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통합 교재를 제작, 배포
 - 중도 장애자를 위한 교육 교재 제작
- ④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 설비의 연구 및 개발
- 독서환경 향상을 위한 기기 등을 개발, 제작·대여·보급
 -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기기 연구·개발
 - 문화향수 및 정보격차를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조사
- ⑤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의 재교육
- 전국의 장애인 담당 사서의 장애인 서비스 전문화 교육
 - 사회 환경과 과학 기술에 따른 전문가 재교육
- ⑥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일
- 지역 대표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 온라인을 통한 종합목록 구축
 - 온라인을 통한 모든 자료 공유
 - IFLA 및 Daisy 협회 등에 국내 대표도서관으로 가입
 - 국외의 시각장애인도서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교류, 상호대차
 - 한국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위를 선양
- ⑦ 대민홍보
- 행사, 캠페인, 매스미디어 등을 이용,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IV. 결론

국내외 점자도서관의 정책과 현황을 통해 문화의 차이가 큰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국민의 평등권 가운데 하나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거나 지역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다. 선진국에 비교해서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에도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경제적 여건만을 탓할 것은 아닌 듯 싶다.

그나마 이제라도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없이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예산낭비의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도 언제나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추진하여 정책과 현실이 괴리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나, 시민, 학계, 장애인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라며 국내외 비교분석을 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이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